

## 혁신성장을 위한 IP 융복합의 조건

20세기 초반 '혁신의 선지자'라고 불렸던 경제학자가 있었다. 바로 '창조적 파괴(Creative Destruction)'라는 용어를 경제학에 널리 퍼트린 조지프 슈페터였다. 그는 일찍이 혁신적 기업가가 이윤을 창조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고, 혁신이 경제성장의 동력임을 주장하였다.

우리는 그 동력을 100년이 지난 지금에도 다시 찾고 있다. '혁신'이 없으면 '미래'도 없다는 주장은 단지 하나의 수사가 아니라 우리가 현재 직면한 현실이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우리는 창조적 활동으로서의 콘텐츠산업과 동력으로서의 IP에 주목하게 된다.

지금은 새로운 기술의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매일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가 개발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는 단순히 이런 기술과 서비스의 개발을 '혁신'이라고 단언하지는 않는다. 아마존 CEO인 제프 베조스의 말처럼 "기술 자체가 혁신이 아니라, 기술이 여러 사람에게 쓰일 때 혁신"이기 때문이다. 다양한 기술과 서비스 및 원천콘텐츠를 만들고, 연결하고 융합할 때 만들어진 혼종이 새로운 변화와 시장을 만들 수 있다는 말이기도 하다.

장르를 뛰어넘고, 세상을 다양한 모습으로 유

량하는 콘텐츠 IP의 변신과 활동에서 우리는 그 의미와 조건을 살필 수 있다. 소설로 시작해서 웹툰이 되었고, 다시 드라마로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준 <김비서가 왜 그럴까>는 가장 대표적인 예가 될 수 있다. 또한 게임이 TV 예능을 개척하는 한편, 음악 및 패션과의 융합을 시도하고 있다. 탄탄한 스토리를 지닌 웹툰은 관객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는 공연이 되었다.

비람직한 IP 활용 및 융복합을 위하여 염두에 둬야 할 몇 가지 전제조건과 과제가 있다는 점을 우리는 다양한 사례에서 발견할 수 있었다. 내적인 힘을 탄탄하게 지녀 '검증된' 원작 IP는 또 다른 혁신으로의 발전을 보장할 수 있다. IP가 장르를 넘어가는 행위는 변신이며 모험이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소비자가 사랑한 원작의 특징이 세심히 고려되어야 새로운 성공 또한 만들어낼 수 있음을 다시금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IP가 확장될 수 있는 영역은 무궁무진하다. 장르에 갇힌 시각은 어쩌면 콘텐츠를 대할 때 우리가 가장 마지막으로 버려야 할 고정관념일지도 모른다. 익숙한 관점에서 벗어나 시야를 넓힐 때, 비로소 진정한 '혁신'은 시작될 수 있다.